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맥추감사절

麥秋感謝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 23:16)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편집부)

열린프로그램 24년 여름학기 모집

서울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교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 학기운영: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4년도 여름학기:7/ 13일(토)-9/15 (주일), 10주

3. 운영비:각 학기당 90,000원 (10시간 기준, 색소폰 받은 자체 운영)
4. 문의 및 신청:남재은 집사, 교회사무국
5. 구급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악기	클래식기타(기초반)	주일	10:15-	10주	B101	장윤식 집사
	클래식기타(중급반)		12:40-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10주	B101	정인주 단장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교회 반주(CCM, 찬송가)	토	10:00-	10주	505	양경실 집사
노래	즐거운 성악교실	토	11:00-	10주	503	신모란 집사
	실용 보컬(Vocal)	토	11:00-	10주	602	이신원 선생
댄스	조이 워십(한국무용)	목	13:30-	10주	704	조경숙 권사

- * 신설 강좌
- * 클래스 특성에 따라 개강/종료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토요일 통기타/베이스 기타반, 힐링연기 및 미술은 개인사정으로 여름학기 휴강입니다.
- * 여름학기부터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수강 시 수강료의 50%를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 * 나의 재능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강사 지원을 환영합니다.

교인 사진 촬영 마감

지난 5월 첫 주부터 시작한 교인 명부 작성을 위한 사진 촬영과 개인 사진 사무국 제출을 6월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촬영하거나 사진을 제출해주신 200여분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교적부에 바꿔 올리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사진을 제출하실 분은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교구위원장 노제현 장로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맥추절을 지키는 믿음

레 23:9-14



손달익 위임목사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모두 농경사회의 절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치신 그 근본 제정 정신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 또한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주어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규정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여 모든 수고가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 그들이 마주한 가나

안 땅의 상황은 다소 실망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인종말살 정책에서도, 홍해의 바닷길 속에서도, 죽음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을 유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존재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믿음은 우리의 현실 자체를 은혜로 알고 존재와 생존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빌 3:12) 그래도 현재의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 신앙이요 절기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제도는 유일한 공직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재산소유와 권력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온갖 굶은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마다 역사가 퇴행했고 사회는 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제사장들을 섬기게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맥추절 섬김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국가의 모든 조직이 와해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살필 기능이 나라에 전혀 없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서둘러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백성 돌보는 일을 자임했습니다. 이 당시 진정으로 백성들을 보호한 유일한 공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도와야 할 가난한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데 교역자들조차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니 헌금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만든 제도가 성미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 쌀과 잡곡을 한 줍씩 따로 떠서 주머니에 모았다가 주일에 교회로 가져가 모든 성도들이 가져온 곡식을 모두 모아 교역자들의 식량으로 드렸습니다. 그 양식으로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 일도 하

고 마을 일도 하시면서 전도하고 백성들 살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맥추절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모두가 정성으로 참여하는 헌신의 신앙이 맥추절 신앙입니다. 맥추절 신앙의 첫 번째 요소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맥추절 신앙의 첫 번째 요소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1. 첫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은 곡물의 첫 이삭을 맥추절 예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10절) 성경은 첫 열매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출 23:19, 34:26) 이 말씀들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과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다음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첫 사건들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시련이 마라의 물 사건이었습니다. 광야길 사흘째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겨우 찾은 마라의 쓴 물에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만나게 될 광야의 쓰디쓴 현실들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임을 가르치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첫 열매, 첫 사건, 첫 자식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이며 동시에 첫 것을 바침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첫 곡식 단을 바칠 때 번제물도 함께 드리라고 하십니다.(12절) 번제란 제물 된 동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제사입니다. 때문에 맥추절의 신앙은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신앙입니다.

2. 헌신하라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20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날 제사장들에게도 감사하자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

3. 나누어라

맥추절을 지키는 세 번째 모습은 추수 때 모든 곡식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제도가 가난한 백성들을 돌볼 수 없던 시절에 백성들 스스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신 규정들입니다. 민간 스스로 실천했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구약성경은 특히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 거류민들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율법으로 규정하여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극한 위기에서 최소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특히 이런 명절 때 섬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1세기에 극단적 보호대상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도의 자본주의사회로 갈수록 앞으로 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변화가 오고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공공성, 즉 우리의 공적 신앙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최선의 나눔을 실천하도록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맥추절 신앙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이런 배려, 섬김, 위로, 격려가 있는 신앙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불러오고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 되게 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윤걸 장로
(교육위원장)

최근 한 여가수가 일본에서 80년대 히트했던 노래를 불러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 해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중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지금은 학부형이 된 엄마·아빠와 그때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지금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여름성경학교 주제가입니다.

저에게는 여름방학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머릿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노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더

불어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신나게 뛰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족과 함께 가는 피서만큼이나 기다렸던 기억, 텐트를 싸들고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기 위해 교회 마당에서 버스를 타는 형, 누나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교회로 향하던 기억, 과천에 살던 시절 서울과 경기도의 방학이 달라서, 개근상의 근면 성실함이 학교생활의 기본이었기에, 학교를 빠진다는 것은 꿈도 못꾸는 시대였기에 울면서 성경학교를 포기해야만 했던 기억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십대들의 쪽지’ 발행인 고 김형모 전 도사님의 특강을 들으며 새로운 다짐을 했던 기억, 슬라이드를 통해 ‘악마의 음악’에 관한 특강을 들으며 등이 오싹했던 기억, OHP 악보를 보면서 시시

때때로 뜨겁게 찬양과 율동을 했던 기억...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며 접하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 위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 결심을 기반으로 크리스찬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사랑부를 시작으로 2024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친구들과 함께 뛰노는 즐거움 속에 주님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 주셔서 그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부 2024 여름수련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박준희 안수집사
(사랑부 부감)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늘 그랬듯 올해도 서울교회 교회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부가 여름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7/13-14) 603호와 601호에서 양정호 목사님의 지도로 “우리에게 기도

를 가르쳐 주소서”(누가복음 11:1-13)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잔치, 찬양잔치, 기도잔치가 열립니다.

사랑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남다른 비전을 가지셨던 (고)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직후인 1992년 개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사랑부를 거쳐가며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때 교회의 분쟁과 코로나로 예배 자제를 드리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사랑부 선생님들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지금은 매주 35명의 적지않은 사랑부 가족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느리지만 조금씩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사랑부가 성장할 이 시기에 교사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끝으로 항상 사랑부를 사랑해 주시고 기어 해 주시며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기도 편지 올립니다

방글라데시 0000선교사와 소망의 아이들이 사랑하는 서울교회 손달의 위임목사님,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평안의 안부와 기도 편지 올립니다.

제가 치료와 휴식을 위해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급하게 귀국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진 후 심한 병은 아니지만 치료와 쉬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으며 쉬고 있습니다. 온전한 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건강도 회복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 소망호스텔 (기숙학사, 유치원-컬리지), 0000 지역사역 (학교, 공부방)**

현재 호스텔과 0000학교는.. 가족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모슬렘 명절 '고르반 이드' 여름 방학으로(6월 말까지) 거의 모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호스텔에는 돌아갈 집이 없는 7명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볼 한 명

의 직원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8월 말쯤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000목사님과 스텝들, 호스텔 안에 거하는 40명의 아이들과 밖에서 컬리지와 직장 다니는 20여 명의 아이들의 영육을 지켜 주시고, 0000학교도 더위에 아이들 아프지 않고 모든 학교 일정이 잘 진행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 2025년부터의 사역 재정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조금 더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제야 기쁨이 잡혀가는 0000소망학교와 호스텔을 떠나 이제 세상을 향해 발 디딘 졸업생들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아이들을 영육으로 돕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큰 녀석들이 참 다양하게 사고를 쳐서 너무 밋고 속상해 몰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의 상처는 그 아이들이

자라며 그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울며 고백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저는 아직도 방글라데시에 발이 묶입니다.

***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저를 방글라데시로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소망의 아이들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난 18년 동안 한결같이 소망의 아이들의 곁을 지켜 주신 서울교회에 감사드리며,

방글라데시에서 소망의 아이들과 000선교사 올립니다.

* 선교사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산나대학-(주)행복마루 산·학 업무협약(MOU) 체결’

2024년 6월 26일(수) LCCNS 자회사인 (주)행복마루(이호석 대표이사)에서 호산나대학(이동귀 학장)과 산·학 업무협약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호산나대학 바리스타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고용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취업 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신규인원 및 결원 충원 시 호산나대학에서 적합한 인원 추천 △현장업무에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직무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견학 등에 관한 협력 △



협약식 사진



호산나대학 졸업생 윤미라, 김현

공동의 교육과정 개발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이호석 대표이사는 “행복마루에 호산나대학 졸업 학생들이 다수 채용되어 있고 장기 고용이 되고 있다. 호산나대학과 MOU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호산나대학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귀 학장은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이 행복마루에 장기 고용되어 있음에 감사드리고 산·학 연계를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 뿐만 아니라 사후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행복마루는 2016년 설립된 LG CNS의 자회사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60여 명의 장애인들이 채용되어 있고 사내카페, 환경미화, 헬스테라피 업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장 : 참된 믿음과 믿음의 내용(1)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교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 그 종교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내용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면,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신앙의 정의, 대상,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믿음/신앙의 정의, 대상, 내용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믿음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믿음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문에서 22문까지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9문에서 “거룩한 복음”을 언급함으로써 참된 믿음과 거룩한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믿음의 내용은 거룩한 복음이고, 거룩한 복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설명되어 있

기에, 사도신경을 알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들은 사도신경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사도들이 만든 신경도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도 성경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100년 경 로마교회의 세례 문답형식에서 발전한 것으로 사도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온 복음과 복음의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문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이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단계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답: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0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 처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두 번째 나오는 “모든 사람”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모든 사람”의 구원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에 따른 “필연성”으로서 죄 가운데 놓인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면, 두 번째 나오는 “모든 사람”은 “가능성”으로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필연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가능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필연성)이 타락한 것이라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필연성)이 구원받아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곧 아담이 행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느냐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곧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깨진 약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그리스도”인데,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답인 29-52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강의에서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약속 곧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새롭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마치 장대에 달려 높이 올려진 못뿔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의 질병에서 놓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오해가 많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언어가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일상에서도 구원을 경험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해 볼까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구원의 사전적 정의

는 일반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특히 신약성경에서 구원은 ‘소테리아(soteria)’로 주로 죄,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믿는 이들을 구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쓰였습니다. 하용조 편,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출판사, 2011).

이런 의미에서 보면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들은 경전이 있고, 사원과 사제들이 있으며, 경전에 바탕을 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체계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음을 제대로 이야기 하려면,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타종교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타종교에 구원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그리스도교에서는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0문은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제조건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된 믿음입니다.

